

메이크업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에 따른 조화감 평가

정 수 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Harmony Evaluation for Same-color Coloration of Makeup and Clothing

Su-Jin Je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7. 1. 2. 접수)

Abstract

In this research, 128 stimuli of same-color coloration of lipstick and clothing were evaluated to the degree of harmony in the coordination of makeup and clothing color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lipstick tone, clothing style, and clothing tone. As to the brown eyeshadow, vivid lipstick and vivid, dull clothing, dull lipstick and light, dull, dark clothing, dark lipstick and dull, dark clothing among the combinations of red lipstick and clothing, vivid lipstick and vivid, light, dark clothing, dull lipstick and light, dull, dark clothing, dark lipstick and dark, clothing among the combinations of orange lipstick and clothing were evaluated as harmonious coloration regardless of the clothing style. As to the violet eyeshadow, vivid lipstick and vivid clothing, dull lipstick and light, dark clothing, dark lipstick and dull, dark clothing among the combinations of red lipstick and clothing, vivid lipstick and vivid, dull clothing, dull lipstick and vivid, light, dull clothing, dark lipstick and vivid, dull, dark clothing among the purple lipstick and clothing were evaluated as harmonious coloration regardless of the clothing style. Thus, the degree of harmony cannot onl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lothing style even in the same coloration, but also the same clothing style can be perceived to be different degree of harmony depending on how the color and tone of clothing and lipstick are coordinate.

Key words: Harmony, Same-color coloration, Makeup color, Clothing color, Tone; 조화, 동일색상 배색, 메이크업색, 의복색, 톤

I. 서 론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에 대한 가치기준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루키즘(Lookism)의 시대라고 할 만큼 외모를 중요시하는 현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자신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얼굴, 의복, 행동, 말투 등 여러 요인들이 있

으나 의복과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 중 얼굴은 가장 특징적인 시각적 자극이 되며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의복,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및 액세서리 등과의 조화로운 토탈 코디네이션이 요구된다. 토탈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색채는 가장 눈에 띄는 요소로 개인의 이미지와 기호, 성격 등 자신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긍정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코디네이션 요소들의 색채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얼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수정할 수 있는 메이크업은 얼굴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의 색과

[†]Corresponding author

E-mail: jini5980@hanmail.net

조화되었을 경우 심리적 만족감과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지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매력이 감소되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조화를 통한 이미지 연출이 중요하다.

메이크업 색채에 관련된 연구로 메이크업의 색채경향 및 선호와 관련된 연구(김영인 외, 2004; 김희선, 2002; 신향선, 2002; 원명심, 이명숙, 1998; 한보현, 2003)와 메이크업에 사용된 색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분석한 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복의 배색방법에 따라 조화감을 체계화한 연구(강경자, 2001; 강경자, 2002; 강경자, 문주영, 2004; 강경자, 정수진, 2005)와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따른 조화감 연구(강경자, 임지영, 2006) 등에서 의복색상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조화감 지각에 의복색상의 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서임이 드러났다. 또한 이정옥 외(1995), 박화순(2002)의 얼굴색과 의복색을 관련시킨 연구들을 보면 얼굴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과 의복 각각의 색채조화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메이크업과 의복의 배색에 따른 색채조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토털 패션경향으로 컬러 이미지 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색채조화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색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평가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수량화 과정을 통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색과 배색 유형을 한번에 다루기가 곤란하므로 의복과 립스틱색상을 동일색상 배색으로 통제하여 아이섀도에 따른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과 톤 및 의복스타일 변화에 의한 조화감의 차이를 밝혀 효과적인 컬러 코디네이션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색채조화는 조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출 상태로(Itten, 1996), 슈브뤼(M. E. Chevreul)은 색의 삼속성에 근원을 둔 유사성과 대비성의 관계에서 조화를 규명하였으며 오스트발트(W. Ostwald)는 둘 이상의 색채 사이에 합법적인 관계, 즉 질서가 존재할 때 즐거운 감정이 생기며,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

는 것이 조화라고 하였다(박영순, 이현주, 1998). 먼셀(A. H. Munsell)은 완전한 밸런스, 즉 균형이 이루어진 색은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으며, 아름다움의 정도를 수량적으로 취급한 미도를 색채조화에 적용시킨 버크호프(G. D. Birkhoff)의 조화이론에 의하면 동일색상의 배색은 매우 명쾌하며, 동일명도의 배색은 미도가 떨어지고, 동일색상, 동일채도의 단순한 디자인은 많은 색상에 의한 복잡한 배색보다 미도가 높다고 하였다(박도양, 1981). 문-스펜서 이론은 조화판단이라는 심리규칙을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색채에 대한 판단에는 각종 요인이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미적가치 기준이 있어 그것이 쾌-불쾌를 구분 짓는 것으로 보고 조화-부조화를 2분법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양극의 연속척도로 간주하고 있다(권민, 1991). 배색에서 쾌한 배색이 되기 위해서는 2색의 간격이 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 색이 배색되어 유쾌한 감정을 줄 때 조화라고 하고, 불쾌한 감정을 줄 때 부조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색상에서 모호한 관계가 2색 조화에서 부조화의 원인이 된다(김수석, 1993). 즉, 색채조화는 두 색 또는 여러 가지 색의 배색에 질서를 주는 것 또 통일과 변화, 질서의 다양성과 같은 반대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유쾌하게 느껴질 때 조화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는데 특히 두 색이 조합되어 있을 때 각각의 단색이 주는 느낌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되어 두 가지 색의 조합은 하나로 조직화되어 지각되므로(강경자, 2001),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어 어울릴 때 색채이미지가 강해지고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이미지는 단색이 주는 이미지보다 감정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박은주, 1999). 색의 삼속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개방법을 통해 배색 이미지의 변화와 배색의 효과 또한 높일 수 있다. Kobayashi(1981)는 색의 삼속성을 단순화하여 색과 톤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색채이미지는 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와 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였다. 톤에 따른 배색유형은 톤에 차이를 두고 배색한 톤 온 톤 배색, 톤은 동일하고 색상에 차이를 둔 톤 인 톤 배색, 색이나 톤이 현저하게 대비되

는 콘트라스트 배색 등으로 구분된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는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하므로 조화판단은 구성색의 속성, 구성색간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만으로 조화판단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영역에 해당하는 배색은 질서가 잘 짜여져 있어야 하고 질서가 클 때 미적 평가는 증대된다. 동일한 색상도 인종, 민족, 시대, 지방, 교육정도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유송옥, 1996) 동일한 배색이라도 조화의 범위는 지각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의상에 사용될 경우와 메이크업에 사용되어질 경우 조화정도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메이크업과 의복의 배색에 따라서도 조화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의복의 색채조화에 관한 연구로 금기숙(1992)은 전통 한복에서 색채조화는 패일과 밝은 원색, 어두운 다크 계열의 배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명도대비에 있어 조화로운 배색을 얻기 위해서는 명도차가 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 쉽다고 하였다. 內藤章江, 小林茂雄(2002)의 연구에서는 상의에 난색 계열 색상의 패일, 비비드 톤의 배색은 여성스럽고, 다크 톤을 배색하면 남성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비비드 톤의 동색배색이나 비비드와 패일 톤의 조합은 활발함을 증가시키나 다크 톤과 무채색의 배색은 활발함을 감소시키며, 상하의 색상과 톤이 동일배색이나 유사배색인 경우에 친숙함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민정(2004)의 연구에서 패션디자인의 색채조합에는 통일의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톤이 많이 사용되며, 유사색상이나 대조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톤의 차이에 의한 대조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채도와의 조합에서 높은 조화도를 보이며, 채도변화에 의한 톤 변화보다는 명도변화에 의한 톤 변화가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복배색에서 톤 온 톤 배색, 톤 인 톤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 등을 중심으로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한 연구(강경자, 2001, 2002; 강경자, 문주영, 2004; 강경자, 정수진, 2005)에서 한국 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 여대생은 상하 동일한 톤의 배색을 대체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화되는 톤 조합은 명도의 차이에 의한 중량감에 의해 명도가 낮은 톤이 아래에 명도

가 높은 톤이 위에 놓이는 것이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보다는 명도 차에 의한 배색이 상대적으로 조화범위가 높게 나타나 문-스펜서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형태라면 거기에 조화로운 색채를 배색하여 완성되는 것이 메이크업으로, 색조메이크업은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서로 영향을 줌으로서 미적 효과를 나타내어 메이크업의 목적을 이루게 되며, 색채가 주는 감성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은 색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외모를 변화시키고 싶은 심리적인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로(Jouhar & Graham, 1985), 의복에 사용된 색과 조화를 이룰 때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메이크업의 컬러코드네이션에 따른 조화감을 연구한 선행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에서 아이새도 색상이 갈색일 경우 빨강, 주황 립스틱이 덜과 다크 톤일 때 조화감이 높게 나타났고, 대체 주황, 자주 립스틱은 아이새도 색상이 갈색, 보라인 유사색상으로 조합될 때 조화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얼굴색과 의복색을 관련시킨 이정옥 외(1995)는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동일한 인물에 의복색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후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채색은 활동성이 높고, 무채색은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게 나타났다. 톤에 따른 배색 이미지는 어두운 의복색>둔한 의복색, 밝은 의복색>순색 의복색 순으로, 의복색상계열에 따른 이미지에서는 빨강계열이 조화되고 얼굴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화순(2002)의 연구에서 개인색채 유형을 따듯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의복색 경향을 분석한 결과, 따듯한 형은 짙은 색이 어울리며, 차가운 형은 무채색과 푸른색, 노란색이 어울리는 것으로, 복합형은 밝은색이나 연한색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나 어울리는 의복색은 색의 온도감에 의한 특징보다 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의복색의 톤에 따라 조화도가 달라지며 얼굴색에 따라 조화되는 의복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얼굴에 표현되는 색채활동인 메이크업 색과 의복색의 조화감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코디네이션에 따른 조화정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 중 톤이 통제된 색상인 경우 아이새도색, 의복색으로, 색상과 톤을 구별하여 사용한 경우 립스틱색상 및 립스틱톤, 의복색상 및 의복톤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메이크업을 한 20대 여성의 의복착용 전신사진으로, 모델 선정을 위해 J대 학교 여대생 58명의 얼굴 및 키와 몸무게를 직접 계측한 평균치와 조용진(1999)이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 및 사이즈코리아에서 발표한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20대 표준자료(키: 159.7, 몸무게: 52.9)를 참고로 평가집단(의류학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평가하도록 한 후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메이크업 모델과 의복 착용을 위한 표준체형 모델을 각각 1명씩 최종 선정하였다.

메이크업의 아이새도색은 색채가 갖는 속성 중은 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과 중성색인 파랑, 갈색, 보라를 선정하여 선행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에서 실험연구 하였으나 한색인 파랑 아이새도는 얼굴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며 계절의 영향에 많이 좌우되는 색으로 간주되어 제외시키고 본 연구에서는 갈색과 보라 아이새도로 한정하였다. 립스틱색상은 선행연구(김영인 외, 2004; 신향선, 2002; 원명심, 이명숙, 1998)들을 참고로 립스틱색상 중 가장 기본색상인 빨강을 기준으로 색상환에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 자주 3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기본과 유사색상으로 구분하여 조합시켰다. 즉,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기본)과 주황 립스틱(유사)을,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는 빨강 립스틱(기본)과 자주 립스틱(유사)을 사용하여 각 립스틱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고정하고 명도를 변화시켜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립스틱색상을 선정하였다. 피부색은 선정된 모델의 피부색과 한국인 표준 피부색을 참고로 하여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눈썹은 회갈색으로, 아이라인

은 검정색으로 하였으며, 눈썹과 입술의 형태는 표준형으로 하여 메이크업의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또한 자극물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뒤에서 묶은 형으로 하였다.

의복은 의복유형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Sweat & Zentner, 1985)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에서 사용한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각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복유형을 패션잡지에서 3가지씩 선택하여 평가집단에게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포멀 스타일은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형 재킷에 무릎아래 길이의 타이트스커트 차림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카디건에 팬츠 차림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은 립스틱색상을 기준으로 동일색상으로 선정하고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변화시켰다. 자극물의 립스틱과 의복에 사용한 색상과 톤은 한국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선정된 아이새도 색으로 먼저 눈화장을 하고 립스틱색상과 톤을 변화시켜가면서 화장을 시켜 각각 Digital Camera로 촬영하였고, 선정된 의복을 착용하게 한 후 촬영하여 Photoshop 7.0 program에 이미지를 입력시켜 메이크업한 얼굴사진과 의복을 착용시킨 사진을 맵핑 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의 색상에 준하여 수정한 후 자극물 사진은 메이크업한 얼굴에 의복을 착용한 전신사진(8×16)으로 하여 Epson R210 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아이새도색 2가지(갈색, 보라), 립스틱색상 2가지(기본: 빨강, 유사: 주황, 자주), 립스틱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스타일(포멀, 캐주얼), 의복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5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 subject)설계로 이루어졌다. 5가지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128개의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red)	5R4/14	5R8/6	5R5/6	5R2/6
주황(orange)	5YR6/14	5YR8/4	5YR5/4	5YR2/4
자주(purple)	5RP4/12	5RP8/6	5RP4/6	5RP2/6

자극물을 6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여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무선배치 하였다.

3) 조화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합에 따른 조화감 평가를 위해 평가자가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심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주관적인 반응을 메이크업과 의복색이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로 평가하게 한 후 자료를 수량화 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방법에 의해 Cronbach's α 계수 .943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에 거주하는 여대생 76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과, 피부미용과 등 관련된 전공자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2006년 3월~4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상과 톤에 따른 조화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L.S.D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에 따른 조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새도색(2), 립스틱색상(2), 립스틱톤(4), 의복스타일(2), 의복톤(4)을 각각 다르게 조합한 128개의 자극물에 대한 조화정도를 평가시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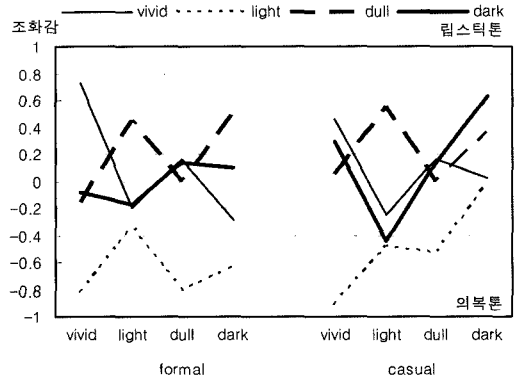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조화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1) 립스틱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빨강색 의복에 립스틱을 4가지 톤으로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립스틱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포멀 스타일의 경우는 의복과 같은 톤인 비비드 톤 립스틱과 조합시켰을 경우에만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캐주얼 스타일은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포멀 스타일



<그림 1> 갈색 아이새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2>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의복톤	립스틱톤	vivid			light			dull			dark			F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빨강	vivid	.73aA	.46A	.589	-.20b	-.25B	.156	.16abA	.16	.000	-.29bB	.02	-.808	3.349*	1.188
	light	-.82B	-.91B	.324	-.34	-.49B	.393	-.81B	-.53	-1.049	-.64B	-.02	-1.484	1.050	1.624
	dull	-.16B	.04A	-.526	.44	.55A	-.321	.00A	.00	.000	.51A	.35	.459	1.628	1.076
	dark	-.08B	.29A	-.945	-.18	-.45B	.758	.51A	.14	1.019	.10AB	.62	-1.340	1.357	2.429
F		5.977**	4.122*		1.742	3.700*		6.203***	1.794		3.981*	1.035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의복톤은 a>b>c, 립스틱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의 경우보다 조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동일색의 조합도 의복스타일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이트 톤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립스틱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 립스틱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덜 톤 립스틱과 조합될 경우만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라이트 톤 의복과 덜 톤 립스틱의 조합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덜 톤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라이트 톤 립스틱을 제외하고는 다크, 비비드, 덜 톤 립스틱 순으로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덜 톤 의복색과 라이트 톤 립스틱은 부조화로 지각되어 이들 톤의 면적이 뒤바뀐 라이트 톤 의복과 덜 톤 립스틱의 배색을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한 것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임으로서 동일 톤의 배색도 어느 면적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조화되는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덜,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립스틱톤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캐주얼 스타일은 라이트를 제외한 톤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의복톤이 덜 톤일 경우와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의복색이 다크 톤이면 라이트 톤 립스틱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색상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 빨강 립스틱일 경우 포멀 스타일은 의복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의복톤이 다크 톤이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립스틱과 의복이 비비드 빨강의 동일 톤으로 코디될 경우 가장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이트 빨강 립스틱일 경우는 의복색의 명도 변화에 관계없이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색의 톤 보다 라이트 톤 립스틱이 조화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덜 톤 빨강 립스틱일 경우는 비비드 톤 포멀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의복톤 변화에 따라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립스틱과 의복의 톤이 덜 톤으로 동일 톤과의 조합보다는 명도 차이가 있는 라이

트와 다크 톤 의복이 조합될 경우 더욱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복배색에서 명도차가 큰 배색이 조화되기 쉽다고 한 금기숙(1992)의 연구결과 및 문-스펜서의 색상차보다 명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립스틱은 작은 부분이지만 의복색과 조합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색채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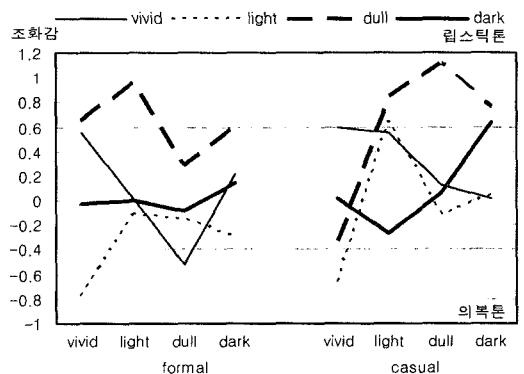
다크 톤 립스틱일 경우 캐주얼 스타일은 라이트 톤 의복을 제외한 다크, 비비드, 덜 톤 순으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멀 스타일은 덜과 다크 톤 의복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 스타일에 상관없이 라이트 톤과 다크 톤의 조합은 립스틱과 의복의 어느 면적에 위치하더라도 조화되지 않는 배색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비비드와 비비드, 덜과 덜, 다크와 다크의 동일 톤 배색은 조화되지만 라이트와 라이트 톤 배색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한복에서 빨강 라이트 저고리와 빨강 라이트 치마의 동색배색을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밝힌 강경자(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조화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주황 립스틱과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

1) 립스틱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그림 2> 갈색 아이새도일 때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3>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색상	의복톤 립스틱톤	vivid			light			dull			dark			F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주황	vivid	.55A	.59A	-.080	.01B	.55A	-1.335	-.52	.13B	-1.591	.21	.02	.542	2.682	.962
	light	-.77B	-.66cB	-.313	-.11B	.65aA	-1.821	-.16	-.11bcB	-1.142	-.29	.04ab	-1.148	1.248	5.365**
	dull	.65A	-.34bB	2.697*	.96A	.83aA	.313	.28	1.12aA	-2.476*	.61	.76a	-.332	.856	6.379***
	dark	-.02AB	.02AB	-.103	.00B	-.27B	.854	-.08	.06B	-.464	.14	.64	-1.201	.122	2.764
	F	4.887*	4.368		3.321*	2.827*		1.659	5.144**		1.634	2.686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의복톤은 $a > b > c$, 립스틱톤은 $A > B > C$ 로 표시
 $*p < .05$, $**p < .01$, $***p < .001$

먼저 비비드 톤 의복에 4가지 톤의 립스틱을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립스틱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비비드와 덜 톤 립스틱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가장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비비드 톤 의복을 비비드 톤 립스틱과 조합하면 조화되고 라이트 톤 립스틱과 조합하면 부조화로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으며 덜 톤 립스틱과 조합하면 포멀 스타일은 조화되지만 캐주얼 스타일은 조화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

의복톤이 라이트 톤일 경우 립스틱톤의 변화에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라이트 톤 의복과 비비드 립스틱은 조화되지만 이들 톤이 뒤바뀐 비비드 톤 의복과 라이트 톤 립스틱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라이트 톤 의복에 덜 톤 립스틱의 조합은 매우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의복톤이 덜 톤인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동일 톤인 덜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의복톤이 다크 톤인 경우 포멀 스타일의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어떤 립스틱톤과도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다크 톤 의복과 립스틱톤의 조화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옥 외(1995)의 톤에 따른 조화성 이미지에서 의복색이 어두운 다크 톤일 때 얼굴색과 어울리고 조화된다고 평가된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해준다.

2) 의복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립스틱 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주황 비비드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을 각기 배색할 경우 주황 덜 톤의 포멀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나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나 주황 비비드 톤 립스틱은 동색의 어떤 톤 의복과도 잘 조화된다고 볼 수 있다.

라이트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톤을 각기 배색할 경우 라이트 톤 립스틱과 비비드, 다크 톤 의복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고 라이트와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라이트 톤으로 동일 톤 조합일 때 가장 높은 조화도를 보였다.

덜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톤을 각기 배색할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주황 덜 톤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 의복과의 조합을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조화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주얼 스타일에서 덜 톤의 동색배색은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크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톤을 각기 배색할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립스틱과 의복색이 동일 톤인 다크와 다크 톤의 조합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포멀 스타일은 라이트, 다크 톤 의복일 때, 캐주얼 스타일은 다크, 덜, 비비드 톤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의복톤이 덜과 다크 톤으로 아이새도색과 유사한 갈색계열일 경우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갈색 아이새도를 할 경우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이 빨강이나 주황에 상관없이 동일톤인 비비드와 비비드, 덜과 덜, 다크와 다크 톤은 조화되고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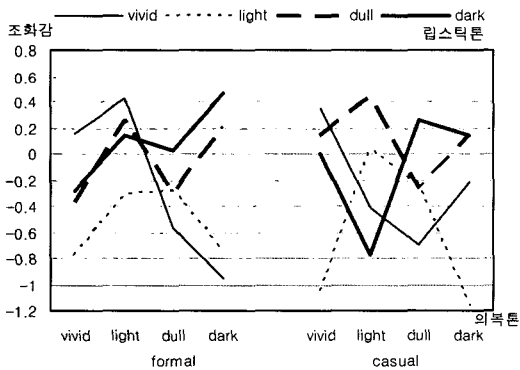
이트와 라이트 톤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고명도의 라이트 톤 조합은 조화감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과 립스틱의 톤이 라이트와 덜 톤으로 조합되면 조화되는 것으로, 덜 톤과 라이트 톤으로 조합하면 부조화로 지각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의복이나 립스틱의 색상보다 톤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조화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1) 립스틱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빨강 비비드 톤 의복일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



<그림 3> 보라 아이새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이 비비드 립스틱과는 조화되고 라이트 톤 립스틱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캐주얼 스타일일 때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비비드, 덜,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라이트 톤 의복일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덜 톤 립스틱과는 조화되고 의복스타일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크 톤 립스틱은 포멀 스타일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덜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가장 조화로운 것으로,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매우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톤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덜 톤 의복일 경우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조화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빨강 립스틱에 빨강색 의복이라도 갈색 아이새도인 경우와는 차이를 보여 아이새도 색상이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덜 톤 립스틱과 라이트 톤 의복의 배색은 조화되고 면적이 뒤바뀐 라이트 톤 립스틱과 덜 톤 의복의 배색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립스틱과 의복색이 어느 면적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조화감은 다르게 평가되었다.

다크 톤 의복인 경우 포멀, 캐주얼 모두 덜,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되면 조화로, 비비드, 라이트 톤 립스틱과 조합되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빨강 립스틱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은 차이를 보였다.

2) 의복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립스틱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면 빨강 비비드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을 각기

<표 4>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의복톤	vivid			light			dull			dark			F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빨강	vivid	.16ab	.35A	-.463	.43a	-.41AB	1.885	-.57bc	-.70	.338	-.95cB	-.22A	-2.129*	5.283**	2.481
	light	-.77	-1.04bcB	1.185	-.31	.04aAB	-.693	-.29	-.25ab	-.093	-.75B	-1.16cB	1.257	.867	4.388**
	dull	-.38	.14A	-1.451	.26	.44A	-.483	-.30	-.27	-.061	.21A	.14A	.185	1.622	1.083
	dark	-.28	.00A	-.765	.14	-.77B	2.706*	.03	.26	-.675	.46A	.14A	.707	1.449	2.815*
F	2.397	6.106***		1.159	3.177*		.679	1.831		7.534***	4.563**				

L.S.D 검정결과 P<.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의복톤은 a>b>c, 립스틱톤은 A>B>C로 표시 *p<.05, **p<.01, ***p<.001

배색할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동일 톤인 비비드 의복과는 조화되고 덜, 다크 톤 의복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멀 스타일은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빨강 비비드 톤 립스틱을 바를 경우는 비비드, 라이트 톤의 포멀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이트 톤 립스틱일 경우는 라이트 톤 캐주얼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빨강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에서 부조화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 라이트 톤의 립스틱이 조화감 지각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덜 톤 립스틱인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라이트나 다크 톤 의복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다크 톤 립스틱의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덜, 다크 톤 의복과 조합될 때 그리고 비비드 톤 캐주얼 스타일, 라이트 톤 포멀 스타일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4. 보라 아이섀도일 경우 자주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조화

보라 아이섀도일 경우 자주 립스틱과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4>와 같다.

1) 립스틱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자주 비비드 톤 의복일 경우 립스틱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비비드, 덜, 다크 톤 자주 립스틱과 조합될 때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자주 립스틱과의 조합

을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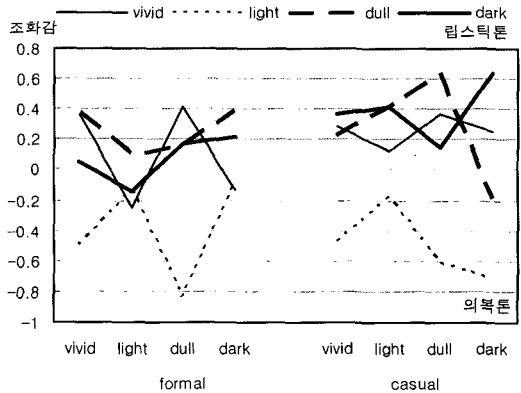
라이트 톤 의복의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덜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로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부조화로 지각하였다.

덜 톤 의복일 경우는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립스틱톤이 비비드, 덜, 다크 톤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과 조합될 때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자주 립스틱의 톤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 의복일 경우 포멀 스타일은 덜,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 스타일은 동일 톤인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립스틱톤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의복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감 정도를 살펴보



<그림 4> 보라 아이섀도일 때 자주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5> 보라 아이섀도일 경우 자주 립스틱과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색상	의복톤 립스틱톤	vivid			light			dull			dark			F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자주	vivid	.37	.28	.226	-.25	.12	-.997	.42A	.37A	.120	-.14	.25AB	-1.094	1.564	.134
	light	-.50	-.47	-.058	-.13	-.18	.130	-.84B	-.61B	-.633	-.09	-.72C	1.358	1.378	.721
	dull	.38	.23	.332	.10	.42	-.861	.16A	.64A	-1.201	.39	-.19BC	1.914	.296	1.747
	dark	.05	.37	-.986	-.15	.41	-1.647	.17A	.14AB	.067	.21	.64A	-1.195	.321	.706
	F	2.407	1.796		.262	1.313		3.518*	3.340*		.688	6.599***			

L.S.D 검정결과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의복톤은 a>b>c, 립스틱톤은 A>B>C로 표시
* $p < .05$, ** $p < .01$, *** $p < .001$

면 자주 비비드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을 각기 배색할 경우 의복톤이 비비드, 덜 톤일 경우는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의복톤이 라이트와 다크 톤인 경우는 캐주얼 스타일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자주 라이트 톤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의복을 각기 배색할 경우는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색의 톤에 관계없이 라이트 톤 립스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덜 톤 립스틱은 다크 톤 캐주얼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주 다크 톤 립스틱은 라이트 톤 포멀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주색 덜과 다크 톤 립스틱이 조화감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톤임을 알 수 있으며,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배색에 의한 조합 중 특히 아이새도색과 유사계열의 색으로 코디될 때 더욱 조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이 빨강이나 자주에 상관없이 동일 톤인 비비드와 비비드, 다크와 다크 톤은 조화되고 덜 톤과 덜 톤의 조합은 의복색상이 빨강일 때 조화되지 않고 의복색상이 자주일 때는 조화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복과 립스틱의 톤이 덜 톤과 라이트 톤으로 조합되면 부조화로, 라이트와 덜 톤으로 조합되면 조화되는 배색으로 나타나 립스틱과 의복 중 어느 면적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색상보다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코디네이션에서 아이새도색, 립스틱색상, 립스틱톤, 의복스타일 및 의복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립스틱색상과 의복색을 동일색상으로 한정하여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만 변화시켜 립스틱과 의복의 톤을 다르게 조합한 128개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하여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갈색 아이새도인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이 7개, 캐주얼 스타일이 10개로 나타나 캐주얼 스타일의 조화범위가

다소 넓게 나타났다.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비비드 립스틱과 비비드, 덜 톤 의복, 덜 톤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과 덜, 다크 톤 의복은 조화되고 특히 덜 톤과 다크 톤은 립스틱색과 의복색 어느 쪽에 가도 상관없이 조화된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갈색 아이새도인 경우 주황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은 9개, 캐주얼 스타일은 12개로 나타나 캐주얼 스타일이 조화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드 립스틱과 비비드, 라이트, 다크 톤 의복, 덜 톤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과 다크 톤 의복이 조화된다고 지각되어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복스타일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 톤 립스틱에 비비드 톤 의복의 배색으로 포멀 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덜 톤의 동일 톤 배색일 경우는 포멀스타일 보다 캐주얼 스타일이 보다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비비드 립스틱과 라이트 의복, 덜 톤 립스틱과 라이트 톤 의복은 조화로 지각되고 반대로 라이트 립스틱과 비비드 톤 의복, 라이트 립스틱과 덜 톤 의복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이들 조합은 어느 면적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보라 아이새도인 경우 빨강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은 7개, 캐주얼 스타일은 8개로 나타났다. 비비드 립스틱에 비비드 의복, 덜 톤 립스틱에 라이트,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에 덜, 다크 톤 의복의 배색은 조화되고 비비드, 라이트, 덜 톤 립스틱에 덜 톤 의복, 비비드, 라이트 톤 립스틱에 다크 톤 의복의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덜 톤, 다크 톤 립스틱에 비비드 톤 의복, 라이트 톤 립스틱에 라이트 톤 의복의 배색은 포멀 스타일에서는 부조화로,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비비드, 다크 톤 립스틱에 라이트 톤 의복의 배색을 포멀 스타일은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부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의복스타일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보라 아이새도인 경우 자주 립스틱과 의복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은 9개, 캐주얼 스타일은 11개로 나타나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에 조화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비비드 립스틱에 비비드, 덜 톤 의복, 덜 톤 립스틱에 비비드, 라이트, 덜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에 비비드, 덜, 다크 톤 의복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된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고, 비비드 톤 립스틱에 라이트,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에 라이트 톤 의복의 배색을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포멀 스타일에서는 부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덜 톤 립스틱에 다크 톤 의복의 배색을 포멀 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부조화로 지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새도, 립스틱, 의복의 색상,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비비드와 비비드 톤, 다크와 다크 톤은 조화되는 배색으로 공통된 반응을 보였고 덜 톤과 덜 톤도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나 보라 아이새도일 때 립스틱과 의복색이 빨강일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대체로 동일 톤의 배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 여대생들이 한복 배색에서 색상에 관계없이 동일 톤의 배색을 부조화로 지각한다는 강경자(200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립스틱과 의복의 배색에 대한 평가는 차마, 저고리의 배색에서 조화감 평가와는 차이를 보여 지각되는 대상에 따라 동일한 배색도 조화정도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라이트와 덜 톤으로 조합될 경우 아이새도 색,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 의복스타일에 관계없이 라이트 톤 의복에 덜 톤 립스틱은 조화되는 것으로, 덜 톤 의복에 라이트 톤 립스틱은 부조화로 지각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어떤 색의 옷을 선택하더라도 의복과 립스틱의 조합을 선명한 비비드 톤이나 어두운 다크 톤의 동색으로 코디네이션시키면 조화가 잘 되지만 선명한 비비드 톤 의복에 연한 라이트 톤 립스틱, 어둡고 탁한 의복에 연한 립스틱의 코디네이션은 피해야 할 톤 조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동일색상의 톤 차이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128개의 조합 중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 수는 포멀 스타일은 32개, 캐주얼 스타일은 41개로 나타나 포멀 스타일 보다는 캐주얼 스타일에서 립스틱과 의복의 톤 배색에 대한 조화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배색이라도 의복스타일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의복스타일도 의복과 립

스틱의 색상과 톤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으로서 사용되는 색상과 함께 명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톤은 메이크업과 의복을 코디네이션 시킬 때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컬러코디네이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을 동일색상으로 하여 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분석한 데 의의가 있으며,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은 의복착용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색상의 배색 방법에 따라 조화감을 분석한 자료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개발 및 컬러코디네이션의 조화로운 배색 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착의자 모델과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각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으며, 자극물 선정 시 의복색과 의복스타일 및 관련 변수를 제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I)-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62-973.
-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V)-컨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825-836.
- 강경자, 임지영. (2005).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한난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4), 632-645.
- 권민. (1991). *조형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 금기수. (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29-40.
- 김수석. (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 김영인, 주미영, 이현주, 김석정. (2004).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2), 91-101.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395-406.

- 김희선. (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07-110.
- 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 박도양. (1981). *실용 색채학*. 서울: 이우출판사.
- 박영순, 이현주. (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 박화순. (200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 *복식*, 52(6), 15-24.
- 성인연령별 표준체형. (2004, 11).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일 2006. 1.30. 자료출처 <http://sizekorea.ats.go.kr>
- 신향선. (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 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명심, 이명숙. (1998). 한국여대생의 의복 및 화장품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0(6), 47-67.
- 유송옥. (1996). *복식의장학*. 서울: 수문사.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정수진, 강경자. (2006). 메이크업 시 컬러코디네이션의 조화감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아이새도 색상, 립스틱색상 및 톤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20(2), 31-43.
-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 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사계절출판사.
- 한보현. (2003).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内藤章江, 小林茂雄. (2002). 女性用スーツの着装イメージと色彩効果. *繊消誌*, 43(10), 52-62.
- Itten, J. (1996). *The art of color*. New York: Reinhold Pub.
- Jouhar, A. J. & Graham J. A. (1985). *Psychological Studies of Cosmetics.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 Kobayashi, S. (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6.
-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pp. 321-336).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